

01 교회소식

찬양을 통해 체험한 성령의 역사

전 세계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천국 소망을 전해 주는 만민 찬양이 9주년을 맞아 해외 성도들의 감사 고백으로 영광 돌린다.

02 생명의 말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죄악으로 더럽혀지기 쉬운 마음 가족을 완전히 배어내고 진리를 가득 채울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다.

03 기획특집

참된 순종의 길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04 간증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막내아들이 죽은 직전에서 살아난 오지수 집사와 각종 문제 고통받던 가정이 행복을 찾은 인도 록슨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825호 2018년 2월 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의 고백〉 등 11개 언어로 번역, 전 세계 보급 “만민찬양 9주년 축하드립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찬양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깊은 기도예 대한 응답으로 친히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를 주고 계신다.

2009년 2월 3일, ‘주님의 고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신 찬양은 345곡에 이르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고 짧은 곡 안에서 음악적인 요소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영어, 중국어 등 11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한국어로 찬양하면 은혜와 감동이 더 크게 임한다는 해외 성도들이 많아 전 세계 만민을 더욱 하나로 이어주고 있다.

만민찬양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아름다운 천국 소망과 더불어 마음을 정화시키고 있다. 평안과 감동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가며 회개와 치료, 응답과 축복, 변화를 가져다 주고, 문제가 해결되는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민찬양 9주년을 맞아,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주님의 고백

Copyright © 2009.2.3
Administered by Manmin Central Church.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1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나의 눈물 보시니
내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께 가나이다

사랑으로 택하신 이들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 뜻 이루시며
저들을 통해 영광받으소서

이 아들이 없다 해도
저들 곁에 늘 있사오니
이곳에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새기소서

2 아버지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 이루니
아버지 사랑으로
영혼들에게 베푸신 구원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
저들에게 주어지니
저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 되어지니이다

아버지의 눈물의 열매
이 아들 통해 이루시니
사랑하는 내 아버지여
감사하나다 감사하나다

기쁨과 감사로 천국 소망 가득해요

“만민찬양을 부르면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위로부터 힘이 주어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지요.”
_ 에스텔라 멜가르 성도, 미국 캘리포니아만민선교센터

“우울한 마음과 두통이 만민찬양을 부르면서 싹 사라져 지금은 천국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_ 제디다 완지루 성도,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만민찬양의 영성과 감동, 훌륭한 찬양문화를 체험한 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깨닫게 됐습니다.”
_ 드미트리 페트롭스키 목사,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 행복해요

“만민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도 영혼들도 그 사랑을 알고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_ 자야쿠마 성도,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가사를 음미하며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_ 갈리나 블라라말라 성도, 몰도바만민교회

“세상 음악에 빠져 살던 제가 만민찬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느끼니 그것을 끊고 새로워졌습니다.”
_ 유 스미카 성도, 일본 동경만민교회

치료와 응답, 축복을 받았어요

“사고로 농아가 됐는데 만민찬양을 부르던 중 오른쪽 귀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잘 들립니다.”
_ 와리판 녹생 성도, 태국 방콕

“만민찬양을 부를 때마다 펌박하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는데, 지금은 교회에 잘 다니십니다.”
_ 낸시 고히르 성도, 인도 델리만민교회

“만민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고통받던 통풍을 치료받았고, 아내는 독감을 치료받았습니다.”
_ 간 바하들 라이 집사, 네팔만민교회



※ 사진배열 간증순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22)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에덴동산에서 만물의 통치자로서 부와 권세를 누리며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음 안에 죄라는 비진리의 내용물이 담기기 시작하면서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마음이 되었고, 이에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게 되면서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과 이전처럼 교통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 곧 인생들의 마음은 더욱 죄에 물들어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그 대신 원수 마귀 사단과 교통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희생시키심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지요(롬 8:15). 또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이뿐 아니라 범죄하기 이전의 생령 아담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며 부족한 없는 삶을 살기 바라시며, 장차 천국을 상속받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 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변개하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 40년의 광야생활 끝에 가나안 땅의 문 앞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있어서 많은 백성이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불뱀에 물려 죽는 등 너무나 허무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들을 무수히 보고 체험해도 변개하는 육의 속성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충성하다가도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며 화평을 깨서 축복의 그릇을 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변개하는 육의 속성을 완전히 빼내어 참마음을 이루어야 마음 중심에 믿어지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끝까지 세상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계명들을 주시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죄의 값은 사망임도 알려 주셨습니다. 또한 실제로 자신의 종족과 이웃들이 죄로 인해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보아왔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가나안 땅을 밟기 직전의 순간에도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 우상을 섬기는 패역을 행했습니다. 이에 2만 명이 넘는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지요. 또한 가나안 땅을 침노해 들어갈 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탐심이 동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을 훔침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동시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주민들의 죄악이 가득 찬 땅이었

지요. 조금만 방심하면 풍요 속에 안일해 지거나 쾌락에 몰들 수 있는 곳이었습다. 그래서 오랜 광야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할 수 있으신지요? 세상 사랑함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3) 교만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갈렙은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능히 취하였습니다. 반면, 단 지파와 같은 일부 지파들은 자신들의 방법과 힘만을 의지했기에 주신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 때는 형통하였지만, 하나님께 여쭙지 않을 때는 가나안 거민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수 9장).

이처럼 ‘교만’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에 자신을 발견하여 참마음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욱 겸비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나가면 명백한 악은 물론 스스로는 깨닫기 어려운 양심의 악과 본성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악까지 남김없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히 10:2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참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할례해야 합니다. 죄악에 더럽혀지기 쉬운 마음 가죽을 완전히 베어내고(렘 4:4) 할례한 마음에 진리를 가득 채우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참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사모해야 할 이유를 알려 주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제목을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생활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참마음이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참마음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곧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참믿음입니다.

생령으로 지어진 첫 사람 아담에게는 ‘참마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마음이 곧 영 자체로 진리의 내용물만 가득했던 생령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만 하여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풍요로운

2.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비취봐야 할 거울

1) 끝까지 변개함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고단한 종살이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 강력한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셔도 그때뿐, 변개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자신의 마음이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려면?

십자가의 십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오직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실 수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의 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안에 '자기'는 없고 '아버지 하나님'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녕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막상 일의 결과를 보면 오히려 불순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 내 안에 '자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라는 것이 있으면 내 생각과 지혜, 방법을 동원하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 놓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또한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면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이처럼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믿음이 있어 사명을 맡아 열심히 감당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주하기 때문이다.

◆

예수님께서서는 '자기'가 전혀 없으셨다. 마음 안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니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다. 공생애 기간 동안에도 늘 기도하기를 힘쓰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맞도록 순종하셨다(눅 9:9; 마 21:2-7).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구속의 십리를 온전히 이루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죽고자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욕심과 사심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현실에 따라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어떤 변명과 이유도 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만 생각하여 그분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순종한다.

◆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여쭙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근심하며 돌아갔다. 비록 그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처음부터 자기 한계 안에서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었기에 결국 자기 유익을 좇아서 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명예나 권세, 자기적인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인지, 내가 생각한 조건과 유익에 맞는 일에만 '아멘'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란다. 정녕 순종할 마음은 기쁨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셨다.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물론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적인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끝까지 그 곁을 지켰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에 어떠한 위험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기'가 철저히 죽어지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마음을 능히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영적인 믿음이 올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천국 소망도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을 믿으셨고, 장차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누릴 영광의 날들을 소망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천국에서 함께할 날들을 소망하게 되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으며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

◆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느껴보기 바란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 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5-39)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러한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영적인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길 바란다.

<p>주요프로그램 안내 2018.2.4~2.10</p>	<p>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영혼육 2-6 창세기 강해 6-11 육체의 결여 7-10 요한계시록 강해 1-6 마음발을 개간하자 1-4 믿음을 천명하시니 22-24 육과 영 선 5 천국 50 	<p>GCN TV 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 있는 사람은 2(이수진 목사) 하나님의 동역자(이미명 목사) 영의 세계 61(이희선 목사) 욥기 강해 30(신동초 목사) 6계명 3(장구영 목사) 십칠, 아버지의 십리(이관규 전도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능 스페셜 14 모두 드려요 58 옛날 옛적에(시즌2) 10 내 마음의 찬양 37 일곱달콩 어여쁜 울동 92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다시해보기) 9 마지막 때 19 창조와 과학 24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상 14 인도 연합대성회 3 믿음으로 걸어온 길 20 <p>전국 어디서나 alLeh tv 882번 세계 어디서나 Roku TV</p>
---	---	---	---	---

“세 살배기 막내아들이 죽음 직전에서 살아났어요!”

오지수 집사 (26세, 1대대 2교구)



지난 1월 2일 오후 2시 45분경, 막내아들 예찬이(3세)가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오전부터 힘이 없고 밥도 안 먹고 잠만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서 갑자기 토해 응급실로 가는 도중, 호흡이 멎었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 직후 자가 호흡을 조금씩 시작하더니

저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만 나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이는 호흡이 돌아왔으나

자가 호흡이 약해 100%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산상 기도 중에 계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고, 저녁 7시경 “조금 전에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찬이는 자가 호흡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지요.

의사 선생님은 예찬이가 심장이 정지되어 병원에 도착한 시간까지 적어도 20분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깨어나도 정상으로 살아가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분 이상 심정지에도 불구하고

뇌파 검사 결과 전혀 뇌에 이상 없어

일반적으로 심정지에서 뇌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회장의 기도를 받은 예찬이는 뇌파 검사 결과, 뇌에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천운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하루가 다르게 신속히 회복되는 아이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예찬이의 병명은 가와사키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가와사키병은 4세 이하 영

유아에게서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급성 열성 혈관염으로, 고열이 지속되면서 심장 혈관까지 염증을 일으켜 심하면 혈전으로 인한 심혈관이 폐쇄되어 급사할 위험이 있지요. 주치의는 “심장의 관상동맥 혈관이 막혀 있는 곳도 있고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어 혈관이 터지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언제 숨이 멎을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신속히 회복돼

아이가 너무 어려 수술은 불가능했고 약물치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1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약물을 투여해 심장 관상동맥의 딱처럼 굳어진 피를 녹이는 시술이 이어졌지요. 부작용으로 위출혈이나 뇌출혈로 사망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이 없도록 지켜 주셨습니다.

아이의 상황에 대해 주치의는 “내일 숨이 멎는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찬이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었지요. 하지만 예찬이는

하루하루 신속하게 회복됐습니다. 입원 4일째인 6일(토)에는 인공호흡기를 떼고 물을 먹기 시작했지요.

7일(주일)에는 일어나 앉았고, 주일 저녁예배 후 당회장님께서 산상 기도처에서 다시 한 번 기도해 주신 뒤로는 “엄마! 아빠! 할머니!” 등 의사표현도 확실하게 하고 장난도 칠 만큼 회복됐지요. 100% 자가 호흡도 가능하게 되고, 심장초음파, 간수치 검사 등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어 1주일 만에 일반병실로 옮긴 예찬이는 예전처럼 밝고 즐거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allel루아!

이 일로 인해 저희 부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청산했고, 특히 남편 오태성 성도는 술과 담배, 게임을 끊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각종 모임에 참석해 은혜를 나누며 행복해하지요.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과 악한 영으로 고통받았던 가정이 행복을 찾았습니다”

록손 집사

(41세, 인도 마두라이만민교회)

저는 어릴 때 왼쪽 다리를 다쳐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2004년부터는 하지정맥류로 인해 무거운 짐도 들기 어려웠고 20분 이상 서 있는 것도 힘들었지요.

아내와 장모님은 저를 위해 열심히 헌신 두 사원을 찾아다녔지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2008년, 아내는 저의 치료를 위해 둘째 아들을 임신 중임에도 주술행위까

지 하다가 전과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구토를 하는가 하면, 바람을 피워 가정 불화가 일어났지요. 귀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결국 2010년 4월, 저희 가족은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큰 아들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한국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



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은 마두라이만민교회에 나가게 됐고 담임 피시얼 전도사님은 “한정희 목사님(첸나이만민교회 담임)을 초청해 손수건 집회가 열리니 아내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한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을 때, 그동안 아내를 괴롭히던 여러 귀신들 중 하나가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저희에게 다니

엘철야에 참석하여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고, 이후 매일 기도하며 피시얼 전도사님에게 손수건 기도를 받았지요. 그러자 나머지 귀신들도 하나둘씩 떠나면서 한 달 만에 온전해졌습니다. 하allel루아!

2017년 8월, 저는 하나님 은혜로 한국에서 열린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당회장의 환자기도를 받고 13년간 고통받던 왼쪽 다리 하지정맥류를 치료받았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자다가 갑작스럽게 전신마비가 왔는데 손수건 기도를 받고 치료됐지요. 이처럼 온 가족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청주만민교회 충청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동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석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재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